#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 분석**

##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 2.2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3 두 위기의 비교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 **1. 서론**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관통하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전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평생 저축이 반 토막 나고, 안정적이라 여겼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위기를 겪으며 이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여파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두 위기는 발생 시기와 지역은 달랐지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대응 방식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 본론**

### **2.1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경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과도한 단기 외채, 고정환율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들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성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바트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정책을 고수했는데, 이는 초기에는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화의 과대평가를 초래했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결국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는 바트화의 변동환율제 도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바트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주변국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위기의 주된 원인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경영에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믿고 무리한 확장 정책을 펼쳤고, 은행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 해외 차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연쇄적인 기업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각국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외화 부채의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느렸고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긴축 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이 동아시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2.2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대규모 경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과 금융규제의 완화, 그리고 복잡한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었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는데, 이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은 복잡한 금융공학을 통해 증권화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주택담보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들은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내렸고, 이는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증권의 가치가 급락했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신용 경색으로 인해 실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달러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신용 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는 투자 감소와 대량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3 두 위기의 비교 분석**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 지역과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두 위기 모두 금융 부문의 취약성과 과도한 위험 추구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는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문제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복잡한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확산과 금융규제의 완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두 위기 모두 한 국가나 지역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위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위기의 발원지와 영향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1997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어 주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2007-2008년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위기의 성격이 다릅니다. 1997년 위기는 주로 외환위기의 성격을 띠었지만, 2007-2008년 위기는 신용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1997년 위기 당시에는 IMF를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긴축 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2007-2008년 위기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1997년 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2007-2008년 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험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 신용 경색,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위험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두 위기의 여파와 회복 과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1997년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이를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반면 2007-2008년 위기 이후의 회복은 더디고 불균등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경제 위기의 복잡성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대응에 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결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세계 경제를 뒤흔든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위기는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위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의 건전성과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입니다. 과도한 위험 추구와 불투명한 금융 거래는 언제든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위기 대응에 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의 중요성입니다. 2007-2008년 위기에 대한 대응이 1997년 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전 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997년과 2007-2008년의 두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참고문헌**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The Asian Crisis: Causes and Cures.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1998/06/imfstaff.htm

2.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1).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FCIC/pdf/GPO-FCIC.pdf

3. Kawai, M., & Takagi, S. (2009). Why was Japan Hit So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56008/adbi-wp153.pdf

4. Stiglitz, J. E. (2010). 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W. W. Norton & Company.

5.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ttps://www.bis.org/publ/arpdf/ar2009e.htm